

전 남

진도 울금 기능성 제품 '잘 나가요'

엑기스·티백차·천연비누 등 인기 진도농협 가공사업소 9억대 매출

20여년전부터 진도지역에서 재배된 생강과 식물인 울금(鬱金)이 다양한 기능성 제품으로 개발돼 도시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17일 진도농협(조합장 조권준) 울금 가공사업소에 따르면 현재 울금을 이용한 엑기스(진액)를 비롯해 분말, 티백차, 건강음료, 환, 과립, 마스크 시트, 천연 속성비누 등 다양한 기능성 제품을 개발, '마플로'(marflor)라는 브랜드명으로 판매하고 있다. '마플로'는 스페인어로 'mar'(바다)와 'flor'(꽃)을 조합한 브랜드명으로 '바다의 꽃'을 의미한다.

진도농협은 지난 4월 사업비 20억 3700만원을 투입해 의신면 돈지리에 가공공장(174평)과 저온창고(100평) 등을 갖춘 울금 가공사업소를 건립했다. 이후 계약농가(80농가 60ha)에서

수매한 울금 200t을 가공, 연말까지 9억대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울금의 경우 지난 8~9월 '불라벤' 등 태풍이 3차례나 한반도를 강타하는 바람에 평년 수확량이 2~3kg 정도로 평년보다 30~50%가량 줄어드는 피해를 입었다.

진도지역 울금재배는 4월께 심은 후 냉해를 입지 않도록 11월 말까지 수확을 마치고 있다. 진도산 울금은 초겨울 잎이 완전히 시들어 뿌리에서 잎의 양분을 충분히 빨아들이게 함으로써 주성분인 '커큐민' 함유량이 타 지역산보다 많은 것이 특징이다.

진도농협은 앞으로 농수산식품부 주관의 '지역식품 전략 육성사업'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아 ▲신제품개발 ▲인프라 구축 ▲마케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명규(왼쪽) 진도농협 상무와 울금 가공사업소 직원들이 가공원료인 건물금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

진도농협 박명규 상무(49·울금 가공사업소장)는 "진도 울금 가공제품에 대한 대도시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다"며 "앞으로 마케팅을 강화하고, 농협중앙회 계통 납품을 통해 전국적으로 진도 울금제품을 유통시키겠다"고 말했다. 문의(061-544-2222)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울금=미국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세계 5대 식품중 하나. 주요 성분인 '커큐민'(curcumin)은 항암효과와 치매예방, 식중독 예방 등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진도는 따뜻한 기후와 비옥한 토양이 울금재배에 적합해 지난 1992년부터 재배하기 시작, 현재는 55ha로 늘어 전국 울금 재배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홍도·증도, 한국인 꼭 가봐야 할 관광지 1·2위

관광공사 선정 100곳 3위는 경북 문경새재



신안 홍도와 증도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국내 관광지 100선'에서 나란히 1등과 2등을 차지했다. 문경새재가 3위, 서울타워가 4위, 청송 주왕산이 5위에 각각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달 12일부터 16일까지 35일간 '한국관광100선 웹사이트'(www.mustgo100.or.kr)를 통해 순위 선정 투표와 이벤트 행사를 실시, 관광명소 100개소를 선정했다. 순위투표는 실시간으로 점수를 집계해 순위를 공개했으며, 순위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아이디별로 중복투표는 가능하지만 같은 아이디로는 24시간 안에 1회만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신안군 홍도와 증도는 이벤트 기간 29일간 연속 1, 2위를 유지했다. 1위를 차지한 홍도는 해마다 관광객 수십만 명이 몰려드는 아름다운 섬이다. 해질녘에 섬 전체가 붉게 보인다 하여 '홍도'라고 불리는데, 홍갈색을 띤 규암질의 바위 섬이기 때문이다. 남문바위(사신)와 석화굴, 만물상, 슬픈여, 일곱남매 바위, 수중 자연부부탑 등 갖가지 전설이 어린 바위들은 관광객들의 시선을 잡아간다.

2위를 차지한 증도는 지난 2007년 '솔로시티' 인증을 받았다. 증도는 천년 해송숲을 비롯해 모실길, 갯벌·염전 등 자연경관과 소금 박물관, 신안 해저유물 발굴기념비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가득하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선정 결과에 걸맞은 관광 인프라 조성 과 의식개혁으로 국민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간 29일간 연속 1, 2위를 유지했다. 1위를 차지한 홍도는 해마다 관광객 수십만 명이 몰려드는 아름다운 섬이다. 해질녘에 섬 전체가 붉게 보인다 하여 '홍도'라고 불리는데, 홍갈색을 띤 규암질의 바위 섬이기 때문이다. 남문바위(사신)와 석화굴, 만물상, 슬픈여, 일곱남매 바위, 수중 자연부부탑 등 갖가지 전설이 어린 바위들은 관광객들의 시선을 잡아간다.

신안군 장산도 항로 내달 새 여객선 투입



내년 1월부터 신안군 장산도 항로에 국고로 건조된 여객선이 투입된다. 목포 지방해양항만청(청장 최의현)은 "신안 낙도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여객선 '섬사람 11호' 건조를 최근 완료하고 다음달부터 본격 운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섬사람 11호'는 신안군 장산도(북강)와 인근 낙도(기도~막금~부소~반월)를 연결하는 보조항로를 운항하던 '신해 8호'를 대체한다.

차도선형 여객선인 '섬사람 11호'는 농·수산물 등 대량의 화물 수송이 가능해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대된다.

최의현 목포항만청장은 "관내 13개 보조항로 모두가 차도선형 여객선으로 운항하게 된다"며 "앞으로도 노후 여객선 교체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운항 여객선의 시설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성기자 kjs0533@

한우 감축 대응, 미분만 암소 육성 박차

장흥군 900두 키워 정남진 토요시장서 판매

장흥군이 사료값 폭등에 따른 정부의 한우 감축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분만하지 않은 암소(일명 처녀우)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내 지자체 가운데 무안군 다음으로 한우 사육두수(5만6000여 마리)가 많은 장흥군은 미분만 암소 900두를 새로운 먹거리로 창출해 이미 전국적으로 한우 고기료 명성을 굳힌 '정남진 한우 토요시장'에 점포시킬 계획이다. 군은 우선 소비자들의 인

지도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분만하지 않은 암소에 대한 명칭(브랜드) 공모를 벌여 20일께 응모작 1점을 선정, 입상자에게는 소고기 10kg을 증정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공모한 제안 건수는 40건에 이르고 있는데 ▲순결한우(분만하지 않은 소) ▲정남진 수우미(배어난 소고기 맛) ▲구뽀한 우(먹고싶어 입맛이 당기는 순수한 한우) ▲장흥미스 우(미 경산우를 은유적으로 표현) 등 다양한 명칭이 제안·접수됐다.

이명흥 장흥군수는 "현재 사료값은 날로 치솟고 있는데 반해 송아지와 성우 한우 소값 하락으로 축산업이 침체된 분위기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분만하지 않은 암소를 비육시켜 건강식품으로 축산농가 소득을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처녀암소는 수소보다 사료량이 적어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을 지닌 데다 불임시술과 주사투입을 통해 발정현상을 억제시킬 수 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곡성 생태습지 나들길 생태관광 시범사업에 선정

환경부 전국 5곳 대상

곡성군이 최근 환경부 주관의 '생태관광지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환경부는 올해 처음 생태관광 지정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최근 곡성 생태습지 나들길을 비롯해 양구 DMZ 원시생태투어, 울진 왕피천 계

곡, 남해 생태관광존(Zone), 제주 동백동산습지 등 5곳을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

'곡성 생태습지 나들길'은 섬진강과 보성강에 넓게 분포하는 습지 초지 및 진간강 생태탐방 나들길 조성 사업을 버드나무 숲이 야생동물의 보금자리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훼손되지 않은 아름다운 강 경관을 간직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곡성은 월봉

습지는 멸종위기종인 '꼬마잠자리'와 '대모잠자리' 등 수십 종의 잠자리가 서식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곡성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섬진강 생태탐방 나들길' 조성 사업을 시작하며 환경부에 습지보호구역 지정신청을 했다"며 "꼬마잠자리 생태습지 지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남약신도시 병원·주유소 용지 분양 26일까지 입찰 접수

전남개발공사는 남약신도시 택지개발지구 택지중 미분양중인 종합의료시설용지와 남약신도시내 주유소 및 역학석유가스충전소 입지가 가능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용지를 공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종합의료시설용지의 분양면적은 38,039㎡로 약국이 함께 입지가 가능하며, 분양가는 153억원이다. 종합의료시설용지는 용적률 300%이하, 건폐

율은 50%이하이고 최고층수는 8층이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용지의 분양면적은 5702㎡이며 분양가는 40억원으로 남약신도시에서 죽림JC, 영암~순천간 남해고속도로와 인접해 있고 남약신도시내 유일하게 주유소와 LPG충전소가 동시에 입지가 가능하다.

입찰참가 신청·접수는 26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이며, 입찰은 당일

오후 1시30분에 전남개발공사 8층 고객맞이실에서 진행된다.

입찰참가를 원할 경우 입찰보증금(입찰액의 5%이상)을 지정된 전남개발공사계좌로 입금 후 신청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www.jndc.co.kr)를 참조하거나 전남개발공사 고객맞이팀(080-285-06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평수기자 bungy@kwangju.co.kr

혁신도시 이전 앞둔 농어촌공 나주 계산요양원과 자매결연

오는 2014년 9월께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할 예정인 한국 농어촌공사(사장 박재순)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박재순 사장은 17일 나주시에 위치한 장애인 복지시설인 계산요양원과 자매결연 협약을 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사진> 농어촌공사는 계산 요양원에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계산요양원과 나주시의 특산물 판매 및 홍보활동을 지원한다. 계산요양원은 공사의 조거정착과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박 사장은 지난 16일 소속도를 방문해 한센인들을 위로하고, 병원 응급 병화프로젝트 제작지원을 위한



지원금 1000만원과 위문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앞서 농어촌공사는 지난 2월 나주 흥고추 마을과 1사1촌 자매결연을 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위한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

박재순 사장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지역발전을 위한 활발한 기여와 공헌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Canon

수지의 착한 선물

2012년 11월 19일 ~ 2013년 01월 10일 페스티벌

행사제품 구매 후 정품등록 및 이벤트 응모를 마친 고객 전원에게 특별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리무마 구스다운 정품 배터리 EOS 60D, EOS 650D
- 어댑터 EF-EOS M 스피드라이프 90EX 정품 배터리 EOS M
- 정품 배터리 CGV 영화관람권(5매) 록시망 핸드크림(150ml) PowerShot G1X, G1S, S110, SX50 HS, SX500 IS

행사장소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오거리 소니센터 맞은편(캐논총판) 문의전화 062)383-3000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주류서비스 성인1인용, 평일방문 고객께 맥주 or 소주 1병 와인 or 생맥주 1잔 선택

가격안내 (미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중합버스터미널 2층

24시 유스퀘어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